



## 2024 수원서베이

# 통근·통학 시간이 수원시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도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원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dhkim@suwon.re.kr jwlee@suwon.re.kr

### 요약

- 수원시민 79%, 통근·통학에 일평균 74분, 한 달 37시간 소요(양복 기준)**
  - 주 이동수단은 자차 41%, 버스 29%, 도보 13%, 지하철 12%, 통근버스 2% 순
  - 통근·통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69%, '보통' 21%, '불만족' 10% 순
  - 주요 불편사항은 '도로혼잡' 30%, '대중교통 운행 횟수 부족' 20% 등
- 통근·통학시간 1분 단축 시 수원시민 삶의 질 0.1점 상승 효과**
  - (교통환경 만족 여부 결정 기준 시간) '교통환경 만족' 31분, '교통환경 불만족' 65분
  - (행정구별 삶의 질) 권선구가 가장 높고(56.5점) 영통구가 가장 낮음(52.6점)
  - (그룹별 비교) '교통환경 만족' 그룹의 통근·통학 시간 31분, 삶의 질 점수 56.5점  
'교통환경 불만족' 그룹의 통근·통학 시간 65분, 삶의 질 점수 53.3점

### 정책제언

- 통근·통학시간 '10분 절감' 목표 설정을 통한 수원시 교통정책 전환**
  -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투자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및 버스 중심 교통정책 재설계**
  - 신호체계 최적화 등 주요 혼잡구간 지속 관리, 버스노선 재조정 및 배차간격 단축
  - 현재 버스전용차로(중부대로, 광교중앙로, 도청로, 수인로9번길, 총 8.8km)를 덕영대로, 수인로, 수성로 등으로 확대하여 승용차에서 버스로의 이동수단 전환 필요
- 친환경 교통정책 실천율이 낮은 지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우선 확대**
  - 영통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우선 확대(영통구 전기차 충전소는 총 16개소. 인구 1만 명당 0.44개로 수원시 전체 평균(1.2개소/만 명)의 37% 수준)

## 1 통근·통학 시간과 시민 삶의 질 관계

### □ 수원시민의 통근·통학 평균 소요시간은 '19년 37.3분에서 '23년 41.0분으로 증가

- 왕복 기준 통근·통학에 82분 소요 ☞ 하루 평균 활동시간(17시간)의 약 8% 차지

<통근·통학 평균 소요시간(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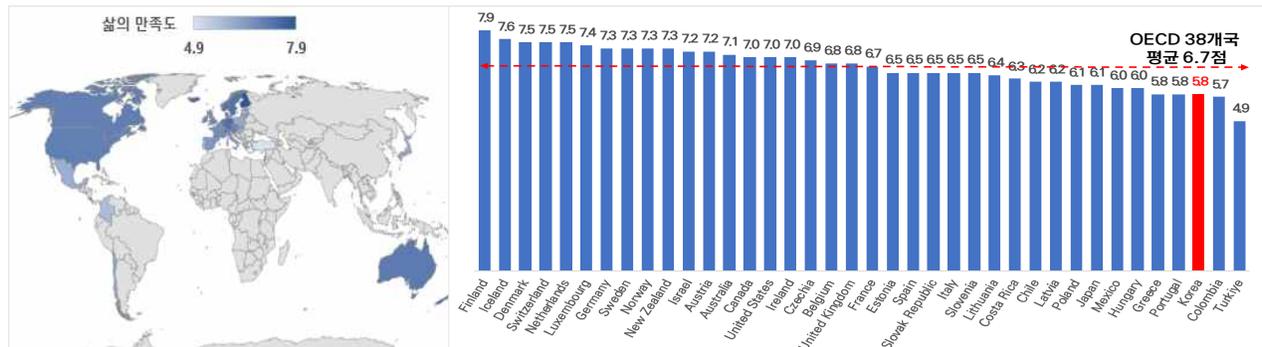


| 출처 : 각 지역 사회조사 통계 (2019, 2021, 2023)

### □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삶의 만족도 36위로 최하위권(37위 콜롬비아, 38위 터키)

- BLI 지수(Better Life Index) : 11개 분야 24개 지표로 구성, OECD 38개 국가 대상 삶의 질 조사  
- 11개 분야 : 주거, 소득, 일자리, 커뮤니티,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생활만족도, 치안, 일과 생활의 조화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비교(2024년 기준)>



| 출처 : 「OECD Data Explorer-Archive(<https://data-explorer.oecd.org>)」의 Better Life Index 중 “삶의 만족도”의 점수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2024년 기준)

### □ 통근·통학 시간이 긴 경우는 다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큼

- 통근·통학 시간이 60분 이상일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감소되며, 도시 거주자에게서 더욱 뚜렷(Jung et al., 2023)
- 장거리 통근·통학이 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만족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John, 2021; Halonen, 2020)
- 일부 통근·통학 시간 관련 연구는 통근·통학 시간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 제시
  - 독일, 영국의 연구에서는 통근 시간과 삶의 만족도가 서로 반비례(Stutzer and Frey, 2008; Roberts et al., 2011), 미국의 연구는 장시간 통근과 주관적 삶의 질은 주목할 만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Humphreys, 2013)
- 통근·통학 만족도는 단순히 시간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교통수단과의 연관성 존재
  - 단거리의 경우 도보와 자전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Fordham, L. et al., 2018), 장거리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만족도가 높은 통근자는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Philippe, G.. et al., 2018)
- 통근·통학은 규칙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근·통학 시간 증가는 시민의 일상 피로도와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며, 삶의 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하므로 통근·통학 시간 변화에 따른 수원시민 삶의 질 관계 분석 필요

## 2 수원서베이를 통해 본 수원시민 통근·통학 특성과 삶의 질

### □ 수원시민 79%는 평일에 통근·통학을 위해 이동하며, 평균 37분 소요(편도 기준)

- (수원시민 통근·통학 비중) 통근 시민 76%, 통학 시민 3%, 통근과 통학을 하지 않는 시민 21%
- (통근 소요시간) 평균 36분 소요, 가장 멀리 이동하는 지역은 “서울”(3시간 30분)이며, 주 이동수단은 “자차” 또는 “지하철” ☞ (수단별 평균 통근 소요시간) 지하철 55분, 자차 38분, 버스 33분, 도보 16분 순
- (통학 소요시간) 평균 56분 소요, 이동거리가 가장 먼 지역은 “대전”(3시간 59분)이며, 주 이동수단은 “통학버스” ☞ (수단별 평균 통학 소요시간) 지하철 74분, 자차 54분, 버스 46분, 도보 32분 순
- (통근 시 주 이동수단) 자차 41%, 버스 29%, 도보 13%, 지하철 11% 순
- (통학 시 주 이동수단) 버스 38%, 지하철 30%, 자차 14%, 도보 14%, 개인형 이동수단 2% 순
- (통근 시 가장 불편한 점) “도로혼잡” 31%, “대중교통 운행 횟수 부족” 19% 등
- (통학 시 가장 불편한 점) “대중교통 운행 횟수 부족” 29%, “긴 통행거리” 2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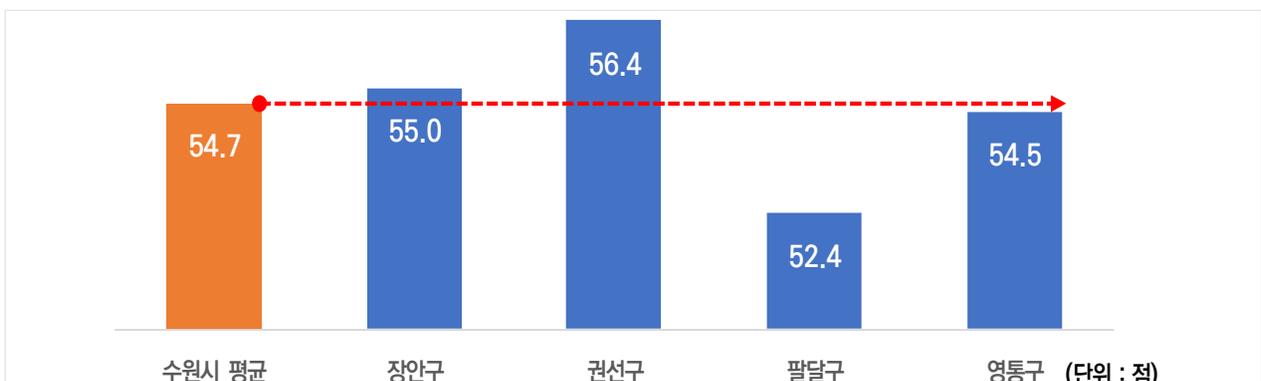
< 통근·통학시민 주 이동수단별 평균 소요시간 >



### □ (삶의 질) 시민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긍정’ 84%, ‘부정’ 12%, ‘보통’ 5%

- ‘자녀양육’, ‘주거·이주계획’, ‘여가·문화’, ‘공원·녹지·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통근·통학을 하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
- 행정구별 삶의 질은 권선구가 56.4점으로 가장 높고, 장안구 55.0점, 영통구 54.5점, 팔달구 52.4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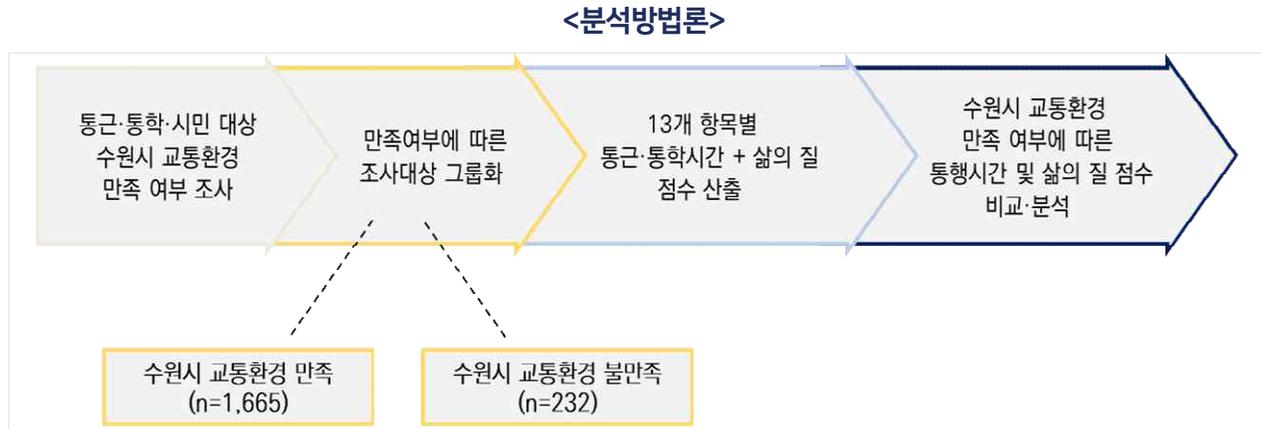
< 통근·통학 수원시민 삶의 질 >



### 3 통근·통학 시간이 수원시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1) 분석 방법론

- (분석자료) 2024년 수원서베이 항목 중 교통분야와 연계된 항목을 선별하여 시민 삶의 질 점수와의 관계 분석  
 - (교통 관련 삶의 질 평가분야) 자녀양육, 거주의향, 여가문화, 환경, 안전, 시정인식 및 기대감 등 6개 분야 13개 항목 선정



#### <6개 분야 13개 항목>

분야	항목
I. 자녀양육	1. 교통접근성, 교통안전 등의 이유로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
II. 거주의향	2. 교통이 편리해서 거주의향 있음
III. 여가문화	3. 이동을 위한 교통편이 부족하여 여가활동에 어려움 느낌
IV. 환경	4. 친환경운전 실천 (급발진·급제동 자제, 정속주행 등)
	5. 단거리 이동시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실천
	6. 전기·수소차 구매 실천
	7.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교통 정책 우선 추진 필요 (친환경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편의성 증진,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 등)
V. 안전	8. 교통사고 등 수원시 사회재난 수준이 안전하다고 생각
	9. 주거지 보행환경에 만족
	10. 수원도심 보행환경에 만족
VI. 시정인식 및 기대감	11. 야간 보행환경에 만족
	12. 수원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
	13. 현재의 수원시 교통정책은 중요함

## 2) 통근·통학 시간과 수원시민 삶의 질 평가

### □ 수원시 교통환경을 만족하는 그룹의 통근·통학 시간은 31분, 만족하지 않는 그룹은 65분

- 국제 연구에서 제시된 30분 기준<sup>1)</sup>과 유사한 결과로, 수원시의 교통정책 목표 설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가능

<수원시 교통환경 만족여부와 평균 통근·통학 시간>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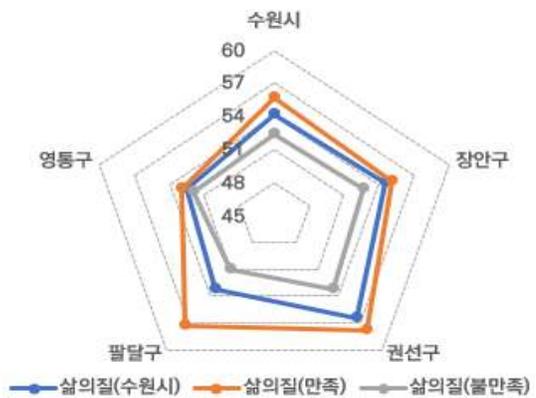
구분	만족 그룹	불만족 그룹	평균
통근·통학 시간 평균	31	65	37
통근시간	30	63	36
통학시간	46	84	56

### □ (행정구별 삶의 질) 삶의 질 점수는 권선구가 가장 높고 영통구가 가장 낮아

- 수원시 교통환경 만족 그룹은 불만족 그룹에 비해서 삶의 질 점수가 높으며, 특히 장안구와 권선구가 수원시 전체 삶의 질 평균보다 높고 불만족 그룹은 팔달구와 영통구가 평균 점수보다 낮게 발생
- 영통구의 경우 교통환경 만족 그룹(52.9점)과 불만족 그룹(52.0점) 간 점수 차이가 0.9점에 불과해 통근·통학 시간 외에 다른 요인들(신도시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 시사

<행정구별 삶의 질 비교>

구분	수원시 전체		만족 그룹		불만족 그룹	
	삶의 질	샘플수	삶의 질	샘플수	삶의 질	샘플수
수원시	54.2	2,419	55.7	1,665	52.4	232
장안구	54.6	526	55.1	372	52.7	38
권선구	56.5	646	57.9	456	53.3	89
팔달구	53.2	566	57.4	345	51.1	44
영통구	52.6	681	52.9	492	52.0	61



### □ (그룹별 비교) 통근·통학 시간 차이는 “단거리 이동시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실천” 항목이 38분으로 가장 크고, 삶의 질 점수 차이는 “이동을 위한 교통편이 부족하여 여가 활동에 어려움 느낌” 항목이 -6.5점으로 가장 크게 발생

- (그룹별 차이) 수원시 교통환경에 만족하는 그룹의 통근·통학 시간은 31분, 삶의 질 점수는 56.5점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그룹의 통근·통학 시간은 65분, 삶의 질 점수는 53.3점
- (6개 분야별 차이) “자녀양육” 분야가 36분으로 가장 크고, “거주의향” 분야가 16분으로 가장 작음
- (13개 항목별 차이) “이동을 위한 교통편이 부족하여 여가 활동에 어려움 느낌” 항목이 -6.5점으로 가장 높고, “교통이 편리해서 거주의향 있음” 항목이 -1.5점으로 가장 낮음

1) <https://thecityfix.com/blog/is-your-commute-harming-your-health/>

## &lt;통근·통학 시간과 수원시민 삶의 질 평가 결과&gt;

분야	항목	수원시 교통환경 만족 여부						차이	
		만족			불만족				
		샘플수 (개)	통근·통학 시간(분)	삶의 질 (점수)	샘플수 (개)	통근·통학 시간(분)	삶의 질 (점수)	통근·통학 시간(분)	삶의 질 (점수)
자녀양육	교통접근성, 교통안전 등의 이유로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	665	32	56.6	68	68	55.2	36	-1.4
거주의향	교통이 편리해서 거주의향 있음	136	36	55.5	16	52	54.0	16	-1.5
여가문화	이동을 위한 교통편이 부족하여 여가활동에 어려움 느낌	247	31	57.7	57	66	51.2	35	-6.5
환경	친환경운전 실천 (급발진, 급제동 자제, 정속주행 등)	897	32	56.7	92	64	53.6	32	-3.1
	단거리 이동시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실천	1,026	31	56.5	129	69	51.4	38	-5.1
	전기/수소차 구매 실천	582	33	58.1	43	65	56.6	32	-1.5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교통 정책 우선 추진 필요 (친환경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편의성 증진,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 등)	491	31	56.1	59	65	51.9	34	-4.2
	<b>소계</b>	-	<b>32</b>	<b>56.9</b>	-	<b>66</b>	<b>53.4</b>	<b>34</b>	<b>-3.5</b>
안전	교통사고 등 수원시 사회재난 수준이 안전하다고 생각	1,224	31	56.8	106	64	53.7	33	-3.1
	주거지 보행환경에 만족	1,391	31	56.1	132	63	53.5	32	-2.6
	수원도심 보행환경에 만족	1,296	31	56.2	106	64	53.5	33	-2.7
	야간 보행환경에 만족	1,186	31	56.3	101	64	53.7	33	-2.6
	<b>소계</b>	-	<b>31</b>	<b>56.4</b>	-	<b>64</b>	<b>53.6</b>	<b>33</b>	<b>-2.8</b>
시정인식 및 기대감	수원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편리한 교통도시 수원	1,428	30	56.0	177	67	52.8	37	-3.2
	현재의 수원시 교통정책은 중요	1,459	30	56.0	195	66	52.4	36	-3.6
	<b>소계</b>	-	<b>30</b>	<b>56.0</b>	-	<b>64</b>	<b>52.6</b>	<b>34</b>	<b>-3.2</b>
<b>지표별 평균 통근 통행시간 및 삶의 질 점수</b>		-	<b>31</b>	<b>56.5</b>	-	<b>65</b>	<b>53.3</b>	<b>34</b>	<b>-3.2</b>

4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통근·통학 시간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며, 31분은 교통환경 만족도의 임계점

- 통근·통학 시간이 31분을 초과하면 교통환경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하며, 65분 초과 시 삶의 질 점수 평균 3.2점 하락
- 통근·통학 시간 1분 단축 시 수원시민의 삶의 질은 0.1점 상승효과 발생 →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원시 교통정책 방향은 통근·통학 시간 ‘10분 절감’ 목표 설정 필요
  - 통근시간 10분 단축 시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사례 참고(Clark, B. et a., 2020)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원시의 교통정책 방향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투자로 전환 필요

2)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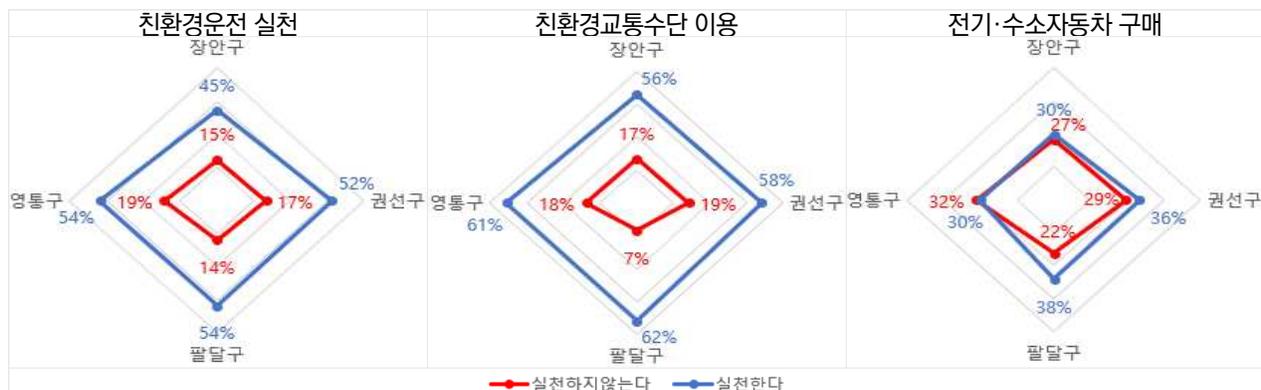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및 버스 중심 교통정책 재설계

- 수원서베이 결과 수원시민 평균 통근·통학 시간이 37분으로 OECD 평균(30.8분) 대비 20% 높은 수준이며(손연정 외, 2023), 통근·통학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도로혼잡” 30%, “대중교통 운행 횟수 부족” 20% 순으로 조사
- 신호체계 최적화 등 수원시 주요 혼잡구간 집중관리 필요 (매산로: 수원역~교동사거리, 덕영대로: 수원역~화서역, 선일초~권선지하차도, 권선로: 동림말사거리~곡선사거리, 수인로: 서수원IC~구운오거리)
- 버스 노선 재조정 및 배차 간격 단축, 버스전용차로 확충 등 버스 중심 교통체계 재편
  - 현재 4개 구간(중부대로, 광고중앙로, 도청로, 수인로9번길, 총 8.8km)에 불과한 버스전용차로를 덕영대로, 수인로, 수성로 등으로 확대하여 승용차에서 버스로의 수단전환 및 이로 인한 교통혼잡 개선 효과 기대

□ 친환경 교통정책 실천율이 낮은 지역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우선 확대

- 급발전·급제동 자제, 정속주행 등 친환경운전 실천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짧은 거리 이동 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실천은 각각 51%, 59%인 반면, 전기·수소 자동차 구매 실천은 34%에 불과
  - 영통구 전기차 충전소는 총 16개소로 인구 1만 명당 0.44개에 해당하여 수원시 전체 평균(1.2개소/만 명)의 37% 수준

<행정구별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비교>



## ✓ 2024 수원서베이

- 조사 목적 : 수원시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하여 수원 시민 중심의 정책 수립에 기여
- 조사 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3,057명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웹 조사 병행)
- 조사 시기 : 2024.9.3.~2024.11.20.
- 조사 내용 : 인구 동향, 삶의 질, 경제 및 사회활동, 공간과 환경,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 시정인식 및 기대 사항

## ■ 참고문헌

- 손연정, 강동우, 홍민기. (2023).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23-21.
- Clark, B., Chatterjee, K., Martin, A. et al.(2020). How commuting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Transportation* 47, 2777-2805.
- Fordham, L., van Lierop, D., and El-Geneidy, A. (2018). Can't get no satisfaction: Examining the influence of commuting on overall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and Daily Travel*. 157-181.
- Halonen JI, Pulakka A, Vahtera J, et al.(2020). Commuting time to work and behaviour-related health: a fixed-effect analysi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77.77-83.
- Humphreys, D. K., Goodman, A., and Ogilvie, D. (2013), Associations between active commuting and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Preventive Medicine*, 57(2): 135-139.
- John P. P., Karst G., Diego B. T., Anne, D. S., Adelaide, N., Prashant, K., Mariana, G., and Alex, H. Z.(2021). Satisfaction with travel, ideal commuting, and accessibility to employment. *The Journal of Transport and Land Use*, 14(1). 995-1017.
- Jung, J. H., Ko, K., Park, J. B., Lee, K. J., Cho, Y. H., and Jeong, I. C. (2023). Association Between Commuting Tim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Relation to Regional Differen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8(15).1-12.
- Ko, E. J. and Jeong, S. B. (2017). The Quality of Life and Commuting: Considering Time- Use and Income of Kyunggi Resident. *GRI REVIEW* 2017. 125-149.
- OECD Data Explorer-Archive(<https://data-explorer.oecd.org>)
- Philippe, G., Marius, T., Christophe, E., and Samulel, C. P. (2020). Links between Attitudes, Mode Choice, and Travel Satisfaction: A Cross-Border Long-Commute Case Study. *Sustainability*, 12(21).
- Stutzer, A., and Frey, B. S. (2008). Stress that doesn't pay: The commuting paradox.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0(2): 339-366.

# SRI 정책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